남성의학 전문의 조철희의

## 솔직, 대담한 性

# 불감증은 성기능 장애다!

술좌석 등에서 오르내리는 음담 패설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여성의 불감증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이다.

여성의 성기능 장애 중 가장 흔한 것이 불감증이다. 오르가즘은 척수의 오르가즘 센터에서 관장하는 신경의 반사작용에 의하여 일어난다. 보통 음핵을 문지르고 압박하면 오르가즘이 일어나며 이때 유두, 겨드랑이, 목덜미, 발, 질 입구 등을 함께 자극하면 오르가즘이 더 쉽게, 더 강하게 일어난다.

불감증은 이런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음핵을 손으로 직접 자극하여 얻는 오르가즘은 성관계에 의해 음핵을 간접적으로 자극하여 얻는 오르가즘과 본질적으로 같다. 심지어는 더욱 강력하게 느끼기도 하는데 성관계의 전희과정에서 음핵을 애무하면 성적흥분을 고조시켜 여성의 절정을 재촉시킬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센터에서 내놓은 보고서들에 따르면 남녀 모두가 오르가즘에 도달한 뒤 15분 안에 맥박, 호흡수, 정신의 흥분상태 등 신체적 변화가 성관계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안락하고 깊은 수면을 취할수 있으며 다음날에도 피로감이 남지 않는다.

반면 오르가즘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원상회복까지 반나절 내지 하루가 걸리게 된다고 한다. 또 여성의 불감증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 당사자인 여성은 물론 남성까지도 피곤하게 되면서 점점 성관계는 멀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불감증은 왜 생길까. 우선 불감증 원인 제공자는 대부분 남성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남성이 너무 일방적으로 끝내버리면 여성 본래의 환희를 얻지 못하고 성감 발육의 지연을 초래한다. 결국 남성의 테크닉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는 셈인데 가장 많은 요인이 남성의 조루증일 것이다. 따라서 남성 조루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여성 불감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여성의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불감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섹스와 이성교제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심리적 갈등을 갖게 되면 반사적으로 오르가즘을 억제시키기도 한다.

예컨대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여성이 어머니로부터 남성에 대해 매우 왜곡되고 편견된 부정적인 면만을 배우다 보면 남성을 신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성관계를 해도 오르가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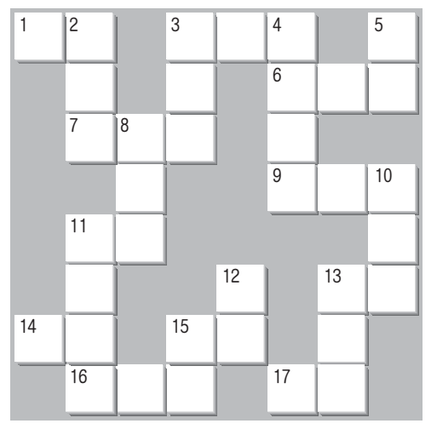
또 성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남성에게 배신당한 과거 등 좋지 않은 체험으로 고통받고 있는 있는 여성들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자존심이 센 고학력 여성들이 부부 관계에서 서로 대립하는 경우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무의식적으로 오르가즘을 억제하기도 한다.

이외 오르가즘을 죽음과 연관시켜 생각하거나 죄책감으로 자기 자신을 벌주기 위한 여성, 쾌락을 즐길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억제하거나 절정 때 자신의 감정 노출을 두렵게 여기는 여성들, 섹스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여성들의 경우에서도 불감증이 나타나곤 한다.

뿐만 아니다. 자궁내막염, 자궁후굴유착증, 나팔관염 등 신체적 문제로 인한 성교 통증도 불감증의 원인이 되며 술·최면제·진정제 등도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오르가즘을 방해한다.

〈젠틀맨비뇨기과원장〉

## 함께 풀어봅시다 < 276 >



### ➔ 가로풀이

1.어떤 물음에 대하여 밝혀 대답함. 또는 그런 대답. 그 문제에 대해 국회는 정부에게 공식적인 ~을 요구했다. 3.높음과 낮음. 또는 높고 낮은 정도. 이 의자는 ~를 조절할 수 있다. 6.과거에 절개가 굳은 여자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문(旌門). 7.조선 말기에서 대한 제국까지의 시기를 이르는 말. 9.진기한 형태와 고운 색채를 가진 거피, 네온테트라, 에인젤피시 등 관상용 어류를 이르는 말. 11.앞 음절의 끝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나는 소리. 13.척추동물의 신장에서 흘러나오는 소변을 저장하였다가 일정한 양이 되면 요도를 통해 배출시키는 주머니 모양의 배설 기관. 14.적을 바로 마주하고 있는 지역을 이르는 말. 그는 기초적인 군사 훈련을 받고 나서 ~에 배치됐다. 15.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져야 할 몸가짐이나 행동. 그는 항상 ~이 바르다. ~을 잘해야 남에게 귀염을 받는다. 16.흔히 결혼한 여자를 정답게 이르는 말. 17.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물속에 넣어 치는 일.

### ➔ 세로풀이

2.야구에서 투수가 포수를 향해 던진 공이 곡선을 그리거나 타자 앞에서 변하는 구질의 공을 이르는 말. 3.사람이나 사물을 높여서 이르는 말.→존댓말. 4.열은 열로써 다스림. 곧 열이 날 때에 땀을 낸다든지 더위를 뜨거운 차를 마셔서 이긴다든지 할 때 쓰이는 말. 5.일정한 운자(韻字)를 달아 지은 글.→율문.↔산문. 8.쉬지 아니하고 내처 걷는 걸음이나 움직임.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집까지 ~에 달려갔다. 10.어른에게 귀여움을 받거나 남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어린아이의 말씨나 태도로 버릇없이 굴거나 무엇을 흉내 내는 일. ~을 부리다. 11.둥글고 넓적한 돌판 위에 그보다 작고 둥근 돌을 세로로 세워서 이를 말이나 소 등으로 하여금 끌어 돌리게 하여 곡식을 찧는 기구.→연자매. 12.편지를 이르는 말. 13.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그물처럼 구축한 병력과 시설의 조직을 이르는 말. 적은 철통같은 우리의 ~을 뚫고 들어왔다. 15.지붕이 도리 밖으로 내민 부분. 두 남녀는 비를 피해 그 집 ~ 밑으로 뛰어 들어갔다.

〈함께 풀어봅시다 275회 정답〉

▲지난주 정답자
정소윤·광주시 남구 진월동
유선아·광주시 북구 두암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 뉴스퀴즈

89. 서남권 경제발전의 새로운 발판이 될 국제공항의 역사적인 개항식이 최근 열렸습니다. 이번 국제공항 개항은 지난 1999년 12월 착공식을 가진 지 8년여 만에 성사된 것으로, 광주·전남지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공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무안국제공항 ②김해국제공항
③청주국제공항 ④대구국제공항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2일(음 10월 3일 庚戌)

**子** 36년생 주변의 친척을 찾아보면 도울 일이 있다. 48년생 오래된 문서가 큰 재물로 변함. 60년생 친구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옴. 72년생 친구와 좋은 곳에서 일을 꾸민다. 84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추진. 행운의 숫자:09,36

**丑** 37년생 주변의 이성에게 인기가 상승. 49년생 오늘은 고통이지만 내일을 기약. 61년생 다투지 말고 협상에 응하라 칼자루를 쥐었다. 73년생 달콤한 말은 독이니 혹하지 마라. 85년생 여유 있게 행동하면 득이 되고 급하면 실이 됨. 행운의 숫자:01,35

**寅** 38년생 마음이 허하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50년생 문단속을 잘하면 실물은 없으리라. 62년생 자식에게 신경을 써라 자식은 자신의 희망이다. 74년생 소원했던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온다. 행운의 숫자:19,31

**卯** 39년생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면 손재도 비켜간다. 51년생 하루가 대단히 불편하리니 지난다. 63년생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75년생 윗사람의 충고를 들으면 잠을 자다가도 떡을 얻는다. 행운의 숫자:04,44

**辰** 40년생 작은 것이 소중하니 오히려 주의하라. 52년생 직장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으니 준비를 잘하라. 64년생 불요불급한 구매로 소비가 생긴다. 76년생 생긴 돈보다는 소비가 크다. 행운의 숫자:21,25

**巳** 41년생 지식보다 지혜를 보여줘라. 53년생 너무 무리한 일은 벌리면 손재가 크니 내실을 기하라. 65년생 멀리서 귀인이 찾아온다. 77년생 代價가 없는 인덕은 좋은 인연을 만들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08,37

**午** 42년생 단순한 방법이 지름길이다. 54년생 현실보다는 큰 꿈을 가져라. 66년생 고난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78년생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니 제사에 철저히 하라. 행운의 숫자:11,34

**未** 43년생 해결이 안 되는 일은 없다 걱정을 버려라. 55년생 마음의 문을 열면 희망도 보인다. 67년생 옛 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다. 79년생 이왕 출발했으면 옆은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돌진하라. 행운의 숫자:0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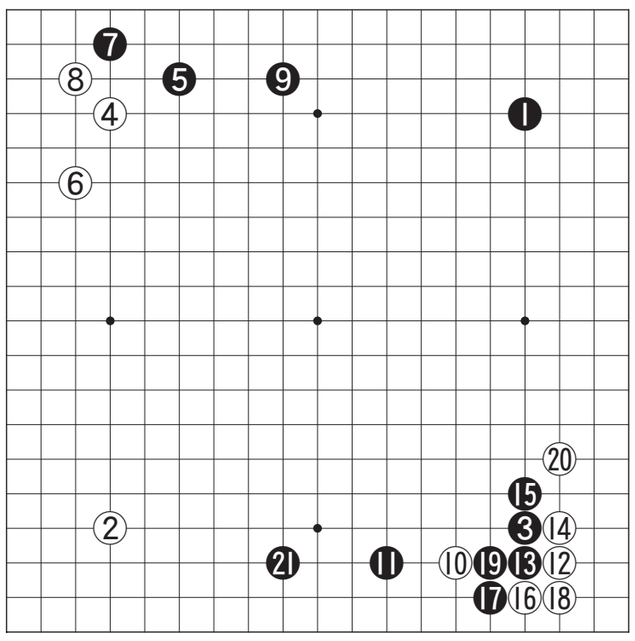
**申** 44년생 가정불화는 피하라 불연이면 이별 수도 보인다. 56년생 자신의 입을 조심하라 스스로 만든다. 68년생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라. 80년생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라. 행운의 숫자:05,26

**酉** 45년 생과거에 억매이지 마라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좋으리라. 57년생 인생의 또 한 번의 도전을. 69년생 걱정을 버려라 일어나지 않을 내용이다. 81년생 옳은 생각은 올바른 행동을 낳는다. 행운의 숫자:14,38

**戌** 46년생 재물을 나누면 행복은 배가 된다. 58년생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채워진다. 70년생 기분 좋은 하루가 되리라. 82년생 밖의 일은 아랫사람에게 부탁하고 내부의 일을 잘 챙겨라. 행운의 숫자:17,29

**亥** 47년생 옛 친구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59년생 용기 있게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라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71년생 아침은 즐거우나 오후는 무료하다. 83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03,45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1회 광주시 바둑협회 회장배 바둑대회

## 숨은 실력자들 1보(1~21)

**일반부 결승전** 白 신희원 5단 黑 오재관 5단

이번 대회에서는 앞서 소개한 최강부와 더불어 가장 많은 관심과 인기를 끌었던 종목이 일반부 갑조 경기였다. 실력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부담없이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가자들로 북새통을 이룰 정도로 대성황이었다.

그러나 일반부라고 해서 최강부와 실력차이가 큰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강호의 숨은 실력자들이 즐비한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승에 진출한 두 기사는 현재 바둑교실을 운영하면서 바둑보급의 최일선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오재관 5단과 오래전부터 숨은 실력자로 강호의 고수들이 인정하고 있는 신희원 5단이다. 돌을 가린 결과 오재관 5단의 흑번, 아무래도 중요한 단판승부에서는 덤이 크다고는 해도 흑을 드는 편이 든든하다. 노타임으로 1,3의 양화점을 차지하며 가장 자신있는 포진을 들고 나온다.

신희원 5단은 전투형. 최강부에서 우승한 심재욱 6단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데 기풍마저도 닮아 재치있고 발이 빠른 것마저 비슷하다. 흑 21까지 모범적인 포석을 보여주는 순탄한 출발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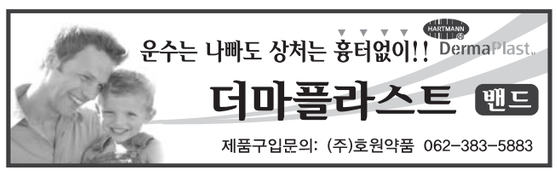
## 바둑소식

### 고주연, 여류국수전 8강 진출

고주연 2단이 최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13기 가그린배 프로여류국수전 16강에서 백지희 초단을 321수 끝에 흑 3집 반으로 꺾고 거두고 8강에 올랐다. 흑을 잡은 고주연 2단은 이날 두텁고 신중하게 판을 짜나가며 백지희 초단의 공세를 노련하게 제압했다.

지난 6월 개막한 제13기 여류국수전에서는 예선을 거쳐 16명의 본선진출자가 가려졌으며, 10월부터 본선 대국이 속개되고 있다. 본선 대국에서는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조혜연 7단이 탈락하는 등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회 우승상금은 1천100만원이며 대국 제한시간은 각 3시간 60초 초읽기 5회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굿모닝 잉글리쉬 <1031>

### What a surprise to see you in here!
### 여기서 자넬 만나다니 놀라운데?

A : Mr. Choi, What a surprise to see you in here!
B : Hi. Judy. How is everything?
A : So far, so good. Would you like to have a cup of coffee?
B : Sure. I haven't seen you for a long time since we talked the last time.

A : 최 선생님, 여기서 만나 뵙다니, 엄청 반갑네요.
B : 안녕하세요, 쥬디 씨. 안녕하시죠?
A :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좋아요. 커피 드시겠습니까?
B : 좋죠. 오랫동안 뵙질 못했군요.
지난 번 우리가 만난 이후로 말입니다.

* So far, so good. = Until now, everything is good. Up to now, everything is fine.
* What a surprise~! : 와, 놀랍군요!
* have a coffee : 커피를 마시다 = have a cup of coffee.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 오하요우 니혼고 <1031>

### 乳離(ちちばな)れするにはもう少し掛(かか)りそうですね。
### 젖떼는 데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A : 南さんのお子(こ)さんは,おいくつになられましたか。
B : 早(はや)いもので, 來月(らいげつ)で滿(あん)一才(いっさい)になります。
A : もう一年(いちねん)經(た)つんですね。歩(ある)けるようになりましたか。
B : ええ、先月(せんげつ)から少(すこ)しずつ歩(ある)けるようになりましたけど 乳離(ちちばな)れするにはもう少し掛(かか)りそうですね。

A : 미나미씨의 자녀는 몇 살 됐습니까?
B : 일찍 났기 때문에, 다음달로 만 1세가 됩니다.
A : 벌써 일년 지났군요. 걸을 수 있게 됐습니까?
B : 예. 지난달부터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젖떼는 데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お子(こ)さん : 자녀(남의 아이를 높여 부르는 말)
經(た)つ : (시간, 때가)지나다, 경과하다, 가다
乳離(ちちばな)れする : 젖을 떼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 니하오 쭝구워 <8>

### 今年几岁了?
### 올해 몇 살이야?

A: 你弟弟今年几岁了?
Nǐ dìdi jīnnián jǐ suì le?
B: 我弟弟今年十岁了。
Wǒ dìdi jīnnián shí suì le。
A: 你妹妹今年几岁了?
Nǐ mèimei jīnnián jǐ suì le?
B: 我妹妹今年九岁了。
Wǒ mèimei jīnnián jiǔ suì le。

A: 네 남동생은 올해 몇 살이야?
B: 내 남동생은 올해 10살이야.
A: 네 여동생은 올해 몇 살이야?
B: 내 여동생은 올해 9살이야.

今年 [jīn nián] 올해, 금년
岁 [suì] 살, 세

〈광주중국어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 한자 이야기 <648>

### 輓歌(만가)
### 끌 만, 노래 가

만가(輓歌)는 상여를 끌면서 부르는 노래이므로,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서양의 엘레지(elegy), 즉 영가(靈歌)와 비슷하다.

유방(劉邦)의 참모인 한신(韓信)이 제(齊)왕 전횡(田橫)을 급습하자 화가 난 전횡은 유방이 보낸 세객(說客)인 역이기를 삶아 죽여 버렸다(팽사·烹死). 유방이 한(漢)나라의 고조(高祖)가 되자 전횡은 보복을 두려워하여 500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발해만(渤海灣)에 있는 지금의 전횡도(田橫島)로 도망갔다. 한편 고조는 전횡이 반란을 일으킬까 걱정스러워 회유하고자 그를 불러 들였다. 전횡은 부름에 응하여 낙양 근처까지 왔으나 포로가 되어 고조를 섬기는 것이 부끄럽다고 자결하고 말았다. 이 때 전횡의 시신을 끌고 가던 문인이 해로가와 호리곡(蒿里曲)이라는 상가(喪歌)를 지어 전횡의 죽음을 애도하며 불렀다.

"고금주(古今注)"에 "해로와 호리는 모두 장송(葬送)의 노래이다. 이연년(李延年)이 곡조를 만들어, 해로는 왕공귀인(王公貴人)의 장례에, 호리는 사대부·서인(庶人)의 장례에, 상여를 메는 자로 하여금 부르게 했다. 세상에서 이것을 일러 만가라고 부른다"는 기록이 있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